

초·중급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쓰기지도

김영경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Обучение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на начальном и среднем уровне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втор: Ким Ёнг Гён,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читают, что обучение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является более сложным, чем обучение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аудированию или чтению.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редставлены задачи и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на начальном и среднем уровне обучен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ский,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бучение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ащиеся начального уровн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ностранн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주제어: 외국어로서 한국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쓰기 지도, 한국어 초급 학습자, 외국인 한국어 교사

들어가는 말

외국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능력이 고루 갖추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 있어 특별히 쓰기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뿐 아니라 외국인 한국어 교사에게 있어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에 비해 다소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왜냐하면 쓰기는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어휘, 문법적 지식이 나타나는 영역인 동시에 정확하고 바른 쓰기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문장을 만드는 능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문단을 만드는 능력, 글을 통일성 있게 쓰는 능력 등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쓰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쓰기 능력을 위해서는 초급 학습자 때부터 보다 체계적인 쓰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는 앞서 말한 쓰기능력의 효과적인 향상을 위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쓰기 지도에 대한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1. 초급단계에서의 쓰기

1) 초급 쓰기 목표

초급쓰기에서는 기본적인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급 단계에서의 쓰기는 자모를 익히고 발음상 어려운 어휘를 정확하게 연습한 후 기초 문법을 학습하여 일상의 간단한 대화문이나 생활문을 맞춤법의 원리에 맞춰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맞춤법의 원리와 띄어쓰기에 맞춰 문장을 쓸 수 있다.

둘째,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친숙한 주제로 단순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과 연결형을 사용하며 시제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대화(짧은 메시지나 전화메모)나 자주 접하는 실용문을 작성할 수 있다.

2) 초급 쓰기 지도 과정

초급 쓰기교육은 첫 단계 한글 자모를 베껴 쓰거나, 들리는 내용을 옮겨 적는 활동(받아쓰기), 철자에 맞게 단어를 기록하거나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다음은 초급 쓰기지도과정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보았다.

① 필순지도: 자모의 정확한 필순지도를 통해 글씨를 바르고 예쁘게 쓰도록 연습시킨다.

② 베껴 쓰기: 각 단원의 중요문장을 베껴 쓰기를 통해 어휘의 의미와 철자를 암기, 문장의 구조 익히는데 용이하다.

③ 받아쓰기: 초급단계에서 완벽한 글의 일부분을 외우게 하고 베껴 쓰기로 연습한 후 받아쓰기를 통해 맞춤법을 익힘과 동시에 음성과 표기의 차이를 인식해 가도록 돕는다.

④ 유형 바꾸어 쓰기: 글의 내용이나 형식은 고정시키되 학습 목표로 설정된 문법 부분에 대해서 학습자가 그 유형을 바꾸어 쓰므로 문법능력 향상에 목표를 둔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⑤ 문장 연결하기: 상이한 문장 혹은 반대되는 문장을 제시하여 각 문장을 적절한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문법에 맞게 문장을 연결하도록 연습한다.

⑥ 질문에 대답하기: 각 각의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한다.

⑦ 단어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제시한 단어를 활용해서 어법에 맞게,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고쳐해 문장을 만든다.

⑧ 다음의 소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집, 약속, 편지, 전화, 우체국, 은행, 여행, 계획,

감정)등으로 작고 쉬우며 재미있는 주제로 짧은 글짓기(150-300 자)나 대화문을 만들 수 있다.

2. 중급 단계에서의 쓰기

1) 중급쓰기의 목표

중급쓰기에서는 초급목표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쓰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재와 관련된 쓰기, 그리고 간단하나마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보다 다양한 기능의 쓰기로 그 목표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은 중급학습자에 대한 쓰기 학습목표이다.

첫째,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에 관해서 다소 문법적인 오류를 보이기는 하나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둘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소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리적, 비판적인 자신의 견해를 쓸 수 있다.

셋째,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 소재의 범위를 넓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업무환경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글쓰기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중급쓰기 지도 과정

① 문장 바꿔 쓰기: 문법적 능력과 문장 구성력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중급수준에 맞는 연결어미를 이용해서 문맥에 맞게 한 문장으로 연결하게 하는 유형 쓰기 연습 및 제시된 문장의 유형을 이해하고 같은 의미로 문장 바꿔 쓰기

② 실용문 작성하기: 직장생활, 병원이용, 은행이용 등 일상생활이나 업무, 사회현상과 관련된 기본 어휘로 관련된 대화나 실용문 작성하기

③ 개인적 내용의 글쓰기: 일기, 기행문, 편지, 요리법등

i. 일기: 일기는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개인적인 글이므로 일정한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연월일, 요일, 날씨에 대하여 쓰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 후 있었던 일, 기억할 만한 일, 반성과 감상, 느낌들을 쓰도록 한다.

ii. 편지: 편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글이다. 받는 사람을 전제로 하여 쓰는 글이므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상대방의 연령, 성별, 직업, 자기와의 친한 정도 등에 따라 알맞은 존칭어를 고려해서 예의를 갖추어 써야 한다.

iii. 기행문: 여행을 통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쓰는 글로 기행문의 내용은 여행한 사람이 언제, 어디를 여행했는지(여정), 그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지(견문), 그리고 여행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감상)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④ 간단한 소재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i. 기사문: 기사문은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을 지켜서 쓰도록 한다.

ii. 보고문: 보고문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리는 글이기 때문에 형식을 지켜서 쓰도록 한다.

보고문의 내용에는 조사 주제, 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이 들어가며 순서에 맞게 내용을 제시 하도록 한다.

⑤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한 글쓰기:

i. 감상문: 감상문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거나 경험한 후 느낀 자신의 생각을 적는 글이다. 감상문에는 책을 읽고 난 후 쓰는 독서 감상문, 영화나 연극, 전시회 등 음악이나 미술 등 각종 예술 작품을 감상한 후 소감을 적는 글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동기, 작품에 대한 간략한 내용정리, 인상적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상을 쓰도록 지도한다.

3. 초, 중급 학습자들의 글쓰기 주의점

글을 쓰는 사람은 외국인 학습자이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한국인일 때 그 문화권에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를 기초로 바른 문장 쓰기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문장에서 기본 뼈대는 ‘주어-서술어’ 관계이다. 이 둘이 서로 일치해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다. 초급 학습자에 비해 중급 학습자의 글쓰기에는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주어-서술어’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경우 잘못된 문장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바른 문장을 쓰기위해서 가급적 주어를 문장의 앞쪽에 쓰고, 지나치게 문장을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문장의 호응관계를 지킨다.

i. 특별히 부사어 중에 ‘아마, 마치, 왜냐하면, 단지’등은 호응되는 서술어가 있다. 이들 부사어는 다음과 같은 서술어 ‘아마 ...것 같다’, ‘단지 ...할 뿐이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마치 ...인 것 같다’ 등과의 호응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문장이 된다.

ii. 또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아직, 절대로, 결코, 별로, 그다지, 밖에, 아무도, 하나도 등은 뒤에 ‘-않다’, ‘안’, ‘못’, ‘없다’ 등의 부정적 의미를 가진 서술어와 같이 쓰여야 오류를 피할 수 있다.

iii.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의 동사 호응이 바른지 주의해야한다. 한국어는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을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하기 때문이다.

iv. ‘주체높임-주어를 높이는 것’, ‘상대높임-듣는 사람을 높이는 것’, ‘압존법-듣는 이가 주체보다 더 높은 경우’, ‘존대어휘의 사용에 주의한다.

v.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지금, 올해, 그때, 당시, 장차, 후일’ 등은 시체가 맞는지 또한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주의해야한다.

셋째, 정확한 어휘와 적절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어순에 맞게 문장을 쓴다.

연결어미는 어떤 연결어미로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져 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연결어미는 하나의 ‘주어-서술어’를 다 른 ‘주어-서술어’와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상호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야 글 전체의 의미가 왜곡 되지 않은 바른 글을 쓸 수 있다.

맺는말

초급학습자에게 있어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문장을 쓰는 습관이 잘못 되면 아무리 중급수준의 어휘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문장은 바른 문장이 될 수 없다. 그러기에 초급학습자 때부터 정확하고 바른 글쓰기를 위한 구체적인 쓰기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자가 쓴 문장 속에서 학습자의 잘못된 문장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면 학습자는 잘못된 문장이 들어있었던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문법적으로 이해한 후 다시 한 번 써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초 중급 학습자에게 쓰기 능력의 향상은 새로운 문장을 어렵게 익히는 것 보다는 이미 배운 내용의 바른 문장이나 짧은 글을 많이 읽고, 외워서 자연스럽게 익힌 문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에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통한 쓰기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